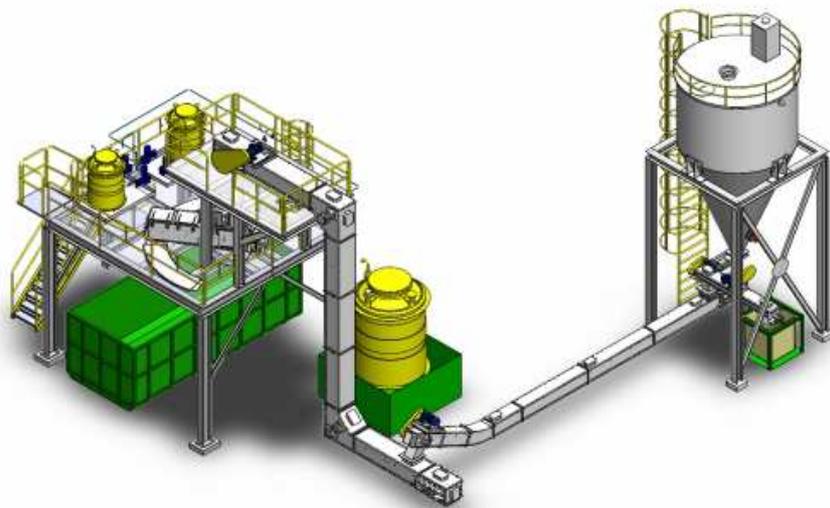


경기일보

HOME > 정치

[경기도의 미래와 함께하는 유망 중소기업] 대성산기(주)

☎ 최현호 기자 | ⌚ 승인 2020.10.28 10:58



고형화설비 3D 이미지

“차별화된 기술력과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고객 맞춤형 설비를 제공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.”

지난 1999년 설립돼 환경플랜트, 산업기계 및 공장자동화 시스템인 컨베이어 생산을 비롯해 소각설비 생산 및 유지보수를 전문으로 한 대성산기(주)(대표 윤수현)의 포부다.

대성산기는 소각시설 핵심설비인 폐기물 파쇄기, 폐기물 이송용 컨베이어, 소각로용 폐열보일러, 소각 후 발생하는 소각재(비산재) 혼련설비, 분쇄설비, 음식물 건조기 등을 제작·시공하고 있다. 또한 소각 후 발생하는 질소산화물(Nox)을 저감시키는 물질인 요소수를 제조·납품하고 있으며, 공공분야 소각시설의 안정적 운영 및 유지보수 개선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.



사장님

주요 사업으로는 ▲공공소각시설 비산재 고품화설비 개선사업(비산재의 고품화 후 일반폐기물로 처리 시 50% 이상 비용 절감 효과) ▲공공소각시설 소각 폐열보일러 대 보수(소각열로 발전설비 가동해 기존 대비 2.6배 이상 발전량 증대 기여) ▲공공소각 시설 연소가스 처리설비 개선사업(미세먼지 감축 기여) ▲공공소각시설 질소산화물 저감 설비 제작 및 요소수 제조 납품 등이 있다.

특히 대성산기의 건조기는 유기성폐기물을 건조하는 장비로, 120도 이상의 고열 스팀으로 건조해 세균도 제거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. 또 파쇄기는 다년간의 경험과 기술개발을 바탕으로 투입물이 고르게 분쇄될 수 있는 칼날의 각도와 간격 등 최적화된 데이터를 통해 제작되고 있다. 혼련기(혼합기)는 소각 후 발생하는 비산재에 물과 킬레이트를 일정 비율 혼합하는 장비다. 2개의 축이 다른 속도로 회전하는 트윈 회전 샤프트 자동 메커니즘을 통해 균일하고 빠르게 비산재를 혼합해준다.



혼련기

이처럼 대성산기는 수도권 및 지방의 생활폐기물 공공소각시설 주요설비의 신설 및 교체사업, 개선사업 등에 참여하고 있으며, 공공분야 소각플랜트 설비의 안정적 운영 관리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지난해 6월5일 환경보전분야 환경부장관 표창을 받았다.

아울러 대성산기는 지난해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으로부터 경기도 유망중 소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고형화설비 외 생산제품들의 기술력과 인지도가 상승해 매출이 증가하는 효과를 보게 됐다.



회사전경

윤수현 대성산기 대표는 "저희 대성산기는 지자체 공공소각시설에 납품 및 설비 보수 공사로 인해 꾸준한 매출 실적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하고 있다"며 "어려운 경기 속에서도 환경 관련 설비의 증가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고, 믿음·신뢰·기술력을 바탕으로 더욱 발전 가능성이 큰 중소기업이라고 자부한다"고 말했다.



회사전경

최현호기자

저작권자 ©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



최현호 기자